

반도체 업황 우려에 삼성전자·하이닉스 주가 급락

유안타증권 “다운사이클 장기화 가능성 크지 않아” 목표가 삼성전자 10.8만·SK하이닉스 13만원 제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7만전자로 되 돌아갔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떨어졌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불확실성 등 반도체 업황의 우려로 투자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이후 삼전·하이닉스 시총 각각 26조·11조 증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2.12%(1700원) 내린 7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장중 8만 33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여드레 만에 다시 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은 더 컸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7000원(6.22%) 하락한 10만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올해 고점인 2월 25일(14만8500원) 대비 29.0% 낮은 수준이다. 5월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며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10만원대로 떨어진 건 작년 12월 2일(10만9000원)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등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50.93으로 전 거래일보다 0.24% 빠지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주요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도 1.16% 떨어졌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컸다. 5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인 삼성전자 1조 6261원, SK하이닉스 9964억원 등 두 종목에서만 2조 6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기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622억원, 2411억원 매도했다.

주가 하락으로 4일과 비교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6조원, SK하이닉스는 11조원이 증발했다. 11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76조8042억원)은 3위인 네이버(73조972억원)와 3조7000억원 차이여서 2

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메모리반도체의 일시적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이슈로 메모리 고객사들의 구매 움직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격조정 장기화 가능성!”… 투자자의 견 ‘매수’ 유지

유안타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불확실성에 급락했지만 주요 메모리 제조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1주 미만으로 거의 없는 데다가 생산 보틀넥(병목현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급락’ 또는 ‘다운사이클(Down cycle)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재운 연구원은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 4분기 때와 같은 ‘깊고 긴 가격 조정’이 재현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며 “올 4분기에서 내년 2분기 모멘텀 둔화와



sk하이닉스이천공장



박미나기자

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3분기부터는 재차 반등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8인치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판가 인상은 내년 공급 부족에 따라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TSMC가 28nm(나노미터) 공정 파운드리 판가를 동결시켰고 이에 따라 파운드리 판가 인상 사이클이 올해 안에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12인치에서 생산되는 28nm공정은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나 EUV(극자외선) 선단공정은 여전히 극심한 공급 부족 국면이다. 올해 TSMC가 대규모 캐패ex(Capex)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에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급증가가 전무한 8인치 파운드리 내내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웨어블,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신규 수요 증가가 8인치 공급 부족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호황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양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했다. 삼성전자

의 목표주가는 기존 10만7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0.9% 올린 반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13만원으로 기존(15만7000원) 대비 17.2% 내려 잡았다. **윤승준기자**

“SK텔레콤, 3분기 실적 전기比 감소”... 목표주가 39만원 유지

한화투자증권 “무선통신 안정적... 11분기 적자 확대 등 이커머스 부진”

SK텔레콤(017670)이 출시 예정인 구독형 서비스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과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3분기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사업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기업분할을 통한 자회사 가치 상승도 긍정적이라며 투자자의 견 ‘매수’와 목표주가는 39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8000억원, 영업이익 396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추정치)를 밑돌았다. 경쟁사와 비슷하게 무유선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줬지만 11분기 적자 폭이 확대되는 등 이커머스 사업은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경쟁 완화 분위기 속에 5G 순증 가입자는 100만명 미만으로 둔화했다. 마케팅비



SK텔레콤이 출시 예정인 구독형 서비스로 초기 비용 부담과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3분기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충수기자**

가 늘어난 것은 2019년 지출했던 마케팅비 자산 상각이 아직까지 회계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화투자증권은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3825억 원을 전망했다. 이순학

이기범기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경쟁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케팅비 자산 상각 부담에서 해방돼 이동통신(MNO)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독형 서비스 런칭으로 초기 비용 부담, 11분기의 아마존 글로벌스토어 오픈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분기 대비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새롭게 공개된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배당 재원이 될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와 CAPEX(미래의 이윤 창출위해 지출한 비용)를 고려할 경우 매년 높아진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하반기 업계 최초의 구독서비스와 11분기의 아마존 직구 서비스를 선보임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동사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위태로운 크래프톤, 기대신작 출시 예정

“공모가 최대 25% 저평가” 이베스트증권 전망

크래프톤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공모가가 올해 실적 전망치 기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관점에서 적정하다는 증권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개의 기대신작 잠재가치까지 감안할 경우 오히려 상당 수준 저평가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크래프톤은 10.35% 떨어진 40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 49만8000원 대비 18.3%나 하락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크래프톤의 시가총액(19조9015억원) 순위는 10월 20위에서 23위로 3계단 내려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기대신작 빅히트 가능성을 믿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대신작을 포함하면 공모가도 15-25% 저평가인데 현재가격은 공모가 대비로도 18% 하락 상태”고 평가

했다. 투자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크래프톤은 올해 9월과 10월 모바일 배틀로얄 슈팅 기대신작 ‘배틀그라운드: NEW STATE’, 내년 여름엔 PC·콘솔 서버이별 호러 기대신작 ‘The Callisto Protocol’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성 연구원은 “상장 전 특수관계인이었던 벨리즈원(상장 후 기준 5.7%)의 구주 매출 등을 포함해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이 41.5%에 달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상장 직후 이들 물량의 출회 여부를 검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현실적이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핵심 기대신작 ‘배틀그라운드: NEW STATE’의 글로벌 출시 일정이 9~10월로 임박한 시점이기에 때문에 수급 눈치보기 시간은 길지 않을 듯하다”며 “게임산업은 흥행산업이고 게임 임주는 기대신작을 겨냥하는 ‘승부주’ 컨셉이 강하다. 기대신작 잠재력을 감안한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승준기자**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 농협안심한우
- 농협안심한돈
- 농협안심계란
- 농협안심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사업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